다산포럼

다산의 토지 제도와 21세기 마을공동체

김 준 혁
한신대학교 교수·한국사 전공

다산은 역사와 중국 '주례'(周禮)의 연구를 통해 농업은 구직(九職)의 하나이므로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농사에 종사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민만이 토지를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생활에는 장사하는 사람과 대장장이 등 아홉 가지의 직업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농업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모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각자의 직업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였다.

다산은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부농민(不農民)에게는 각기 적합한 직업을 주어서 한 사람의 실업자도 없게 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혹시 국가가 상공업을 하는 이들에게 모두 농사를 짓게 하면 아홉 개의 직업 중 여덟 개의 직업이 모두 망하게 되어 백성들의 경제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게 되고 더불어 농업 자체도 퇴화된다는 것이다.

다산은 농업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한 토지 운영 제도를 생각해 냈다. 고대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정전(井田)은 당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땅이 넓고 평지에 있어 바둑판식 모양의 정전이 가능하나 조선은 산이 많고 개간한 논이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하는 현실적인 토지 운영을 제시하였다. 그것이 바로 '여전제'(閭田制)다.

여전(閭田)은 중국의 정전(井田)과 달리 산의 계곡을 이용한 자연 형세 그대로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 경계 안의 내부를 '여'(閭)라고 하고 그 안의 땅을 '여전'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지역을 고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고을은 '골'에서 나온 것으로 '골' 혹은 '골짜기'는 우리 산하에서 산줄기의 아래에 형성된 마을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산의 능선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작은 마을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여'인 것이다.

다산의 여전제는 파격 그 자체이다. 다산은 여전제를 위한 기본 전제로 각각의 '여'는 약 30가구로 정하였다. 당시 일반적으로 산과 계곡을 끼면서 너른 들판이 있는 지대에서 농사짓는 마을의 가구수가 대략 30가구 정도인 까닭에 이와 같이 규정을 한 것이다.

다산은 여(閭)에는 '여장'(閭長)이 있고 1려의 토지는 1려의 백성으로 하여금 공동 경작하게 하여 남과 나의 구분이 없고 오직 여장의 지휘를 따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매일 한 마을에 사는 농민들은 반드시 일을 하러 나와야 하고 여장은 각각 농민들이 일한 분량을 '일력부'(日力簿)에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확기에 이르러 수확물의 전부를 마을의 공정인 도당(都堂)에 반입하여 먼저 일정량의 국가 세금을 제하고 다음에 일정량을 여장의 봉급으로 제한다. 나머지 전부는 일력부에 따라 마을 안의 농토에서 일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하였다.

공동 노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한 노동의 양에 따라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가져가고 덜 일한 사람은 덜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매우 공평한 분배법이라 하겠다. 물론 90년대 이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와 같은 공동 소유 및 공동 노동을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농장에서 더욱 많이 일한 사람에 대한 대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들이 많은 탓이었다. 이는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산은 이미 200여 년 전에 이러한 공동 노동의 모순을 인지하고 거기에 일력부를 만들어 여장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고 하였으니 그 혜안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결국 다산은 당시 사회에서 '여전제'만이 백성들의 삶을 낫게 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산이 주장한 이와 같은 토지 제도는 비록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미래의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현재 우리 곳곳의 공동체 마을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를 예견한 다산의 혜안, 정말 무섭도록 놀랍다.

청춘 톡톡

올림픽, 세계인의 축제인가

조 서 희
광주대 문예창작과 2학년

'코로나19'로 인해 1년간 연기되었던 2021 도쿄올림픽이 지난달 23일에 개막해 8월 8일 폐막했다. 개막 직전까지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도쿄올림픽이 잠시나마 전 세계인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올림픽과 같은 세계인의 축제 속에서도 웃지 못할 상황들이 있었다. 바로 '인종 차별'이다.

남자 탁구 단식 경기에서 우리나라 정영식 선수가 그리스의 파나지오티스 지오니스와의 경기에서 4대 3으로 역전승해 16강행이 확정됐다. 한데 그리스 방송의 객원 해설자는 정 선수에 대해 "그 작은 눈으로 (탁구)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해설자가 소속된 방송국은 성명을 통해 "공영 방송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은 설 자리가 없다"며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지만 정 선수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양궁협회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인종차별은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세계양궁협회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한국 여자 양궁선수를 소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자체는 한국 여자 양궁선수들의 기록을 얘기하는 내용이었지만 선수들의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자에는 인종차별적인 글꼴이 쓰였다. 글꼴은 중국계 식당 메뉴판에 자주 쓰이는 '찹수이'(야채 볶음)로, 디자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백인 정치인들이 인종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캠페인에 자주 쓰던 것이었다. 이 글꼴에는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 공식 석상에서 쓰면 안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서구 사회에서 흑인과 라틴계에 대한 차별은 오랜 세월 동안 진행돼 왔다. 하지만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흑인과 라틴계만큼 큰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리엔탈리즘'과 같이 아시안 문화를 좋아한다는 말로 차별을 애정으로 포장해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시안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시각으로 왜곡하고 대상화하는 문화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다.

그렇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이 혐오로만 물든 행사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새롭게 등장한 MZ 세대의 선수들이 차별을 금지하는 평화적인 메시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독일의 여자 기계체조 선수들은 성적 대상화를 거부하며 기존의 유니폼이 아닌 발목까지 덮는 전신 유니폼을 착용했고, 흑인이자 성소수자인 미국의 포환던지기 선수 레이븐 손더슨은 시상대에서 차별을 반대하는 X자 표시를 손으로 만들기도 했다. 또한 미국 여자축구팀의 무릎을 꿇는 행위 이외에도 많은 선수의 손목이나 발목 등에서 LGBTQ(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를 볼 수 있었다.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의 증진'에 있다. 경기 앞에서 모든 선수는 평등하며, 어떠한 외적인 부분의 평가 없이 실력으로만 평가받게 돼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적인 사건들은 2021년에 벌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퇴보적이었다. 그런데도 21세기에 성장한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이 보낸 메시지는 올림픽이 앞으로 더욱 평등한 행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올림픽의 별명은 '세계인의 축제'다. 앞으로 예정된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정신에 맞는, 말 그대로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기 고

탄소중립 시대의 축산업

최 우 성
농협 전남지역본부
축산사업단 차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이슈는 '탄소중립'이 될 전망이다. 2019년 유엔(UN) 기후정상회의에서 121개 국가가 '기후 목표 상향 동맹'에 가입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최근 '안티 축산' 움직임이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어 축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세계식량기구(FAO)가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축산업을 이렇게까지 곤혹스럽게 할지 몰랐다. '축산업은 자동차, 비행기 등 전 세계 교통수단이 내뿜는 온실가스(14%)보다 훨씬 많은 18%를 배출하고, 메탄의 경우는 총 배출량의 37%를 차지한다'는 식의 내용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축산업이라는 오해를 낳게 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하지 않은 비교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축 사육, 분뇨 처리, 사료작물 생산, 사료 제조, 축산물 유통 가공 분야까지 가치사슬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부 합한 양이고, 운송 분야는 자동차나 항공기 등 운항 중에 발생하는 배출량을 합한 양이니 단순 비교의 오류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제시할 때는 공정하지 못한 보고서가 지금까지 인용되고 있다.

환경부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 277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분야가 6억 3240만tCO2eq, 산업공정 분야 5710만tCO2eq, 농업 분야 2120만tCO2eq(경종업 1180만tCO2eq, 축산업 940만tCO2eq), 폐기물 분야 1700만tCO2eq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하면 농업 분야는 전체 배출량의 2.9%에 불과하며, 특히 축산업은 전체의 1.3%로 경종업보다 적다.

'축산업이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축산업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하면 '육식 기피'와 같은 혼란을 야기한다. 다양한 주장이나 이론 정립은 항상 교차 검증이 있어야 한다. 축산업만이 환경오염의 문제라는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자제하고, 산업구조 전반의 문제로 올바르게 재인식해야 하겠다.

축산업은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해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명 산업이자 농촌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축산물은 농업의 발전 과정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해 획득했던 것에서 진보하고 가축화해 사육함으로써 얻는 방식으로 전환한지 오래다. 인류의 식탁과 생활을 풍성히 채우는 고기와 달걀, 유제품, 가죽 등을 생각해 보자. 또 가축 사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인들도 많다. 인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축산업의 다양한 역할을 이제와서 기후환경의 문제라고 쉽게 내 팽개쳐서는 안된다.

축산업은 유기물 순환과 폐자원 재활용 과정에서 각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효용성이 높은 산업이다. 곡물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 찌꺼기, 도축장 폐기물, 어류 폐기물 등은 사료로 제조돼 애완동물, 가축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가축 분뇨도 90% 이상이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됨으로써 화학비료 생산량을 줄여 농작물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축산업은 환경친화형으로 진화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사람과 동물, 자연환경에 필요한 역할을 시작했다.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 및 자원화 시설, 적정 사육 밀도, 저메탄 사료 개발, 악취 저감 시설 확충 등 축산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억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동물복지 정책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사실에 의한 데이터, 축산업계 및 농업인의 자구 노력,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 대한 기여도는 축산업만이 환경 파괴와 동물 학대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 지구인의 노력이 시작된 지금, 축산업계도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 국민과 공감하며 사랑받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社 說

'문 닫는 문예회관' 이런 엉터리 행정이 있나

개관 30년 만에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 광주문화예술회관이 내년에는 아예 문을 열 수 없게 돼 시민들이 공연 하나 제대로 관람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마무리하려던 대극장 공사가 1년 늦춰진 데다 내년에는 소극장도 공사에 들어가면서 문예회관 전체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예회관은 그동안 시설물과 무대·음향 설비 등의 노후화로 공연·관람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문예회관 측은 지난 3월 보도 자료를 내고 올 12월까지 대극장 내부 시설 개보수와 무대 장비 교체를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내년에는 소극장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를 맡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대극장 리모델링은 내년 하반기에나 완료되며, 점검 및 시연을 거쳐 개선사항을 보완하면 오는 2023년께나 공연이 가능하다고 한다. 문예회관이 발표한 일정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엇박자는 리모델링 초기 양측의 의사소통이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대극장 공사에 2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다. 완공 시기를 잘못 알았다"고 해명했다. 국비와 시비 등 29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종합건설본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정을 발표해 혼란만 가중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연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은 물론 지역 공연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난해와 올해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대극장 리모델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무대에 올릴 대형 작품을 야심차게 준비해 왔던 공연업계는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문제는 손발 안 맞는 엉터리 문화행정으로 인해 내년엔 광주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다.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서 전면적인 공연 중단만은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눈물로 지내온 양 할머니의 한 누가 풀어 주나

"하루 밥 한 끼로는 배가 고파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마시다가 반장한테 '도둑이냐'고 발로 차이곤 했어요. 80년이 다 되도록 일본은 사죄의 말 한마디 없는데 눈물로 보내온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의 한탄이다.

나주에 살던 양 할머니는 열세 살 되던 1944년, '중학교도 보내 주고, 돈도 번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근로정신대에 동원됐다. 하루 여덟 시간 이상 서서 일했지만 월급은커녕 식사조차 배불리 할 수 없었다. 양 할머니는 당시 가혹한 노동으로 지금도 오른손을 잘 못 쓰는 데다 눈도 불편하다고 한다.

1931년생인 양 할머니는 올해로 만 90세가 됐다. 꼭 살아서 사과를 받자며 굳게 약속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수년간 함께 소송을 벌여 왔던 동료 중 남아 있는 이들도 손으로 꼽을 정도다. 광복절을 맞아 광주일보 인터뷰에 응한 양 할머니는 해가 거듭될수록 원통함만 쌓여서인지 올해는 더 서글프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는 76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기약이 없다. 오히려 최근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거론되면서 자칫 오는 10월 30일 이후에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동료들의 소송 제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양 할머니는 우울하기만 하다. 다만 정치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그나마 작은 위안이다.

"솔직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런데 사죄 한마디 못 받고 세상을 떠날 생각하면 너무 원통해서…." 양 할머니의 말이 폐부를 찌른다.

無 等 鼓

과꽃

몇 차례 소낙비 쏟아지더니 그리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완연하다. 달력을 보니 지난 7일이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立秋)였고 다음 주 23일이 더위가 그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處暑)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와 폭염 속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는다.

동네 길섶에 핀 과꽃도 어느덧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국화목 국화과인 과꽃은 산기슭이나 길가 혹은 시골집 한 모퉁이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이다. 한번 심어 놓으면 씨앗이 떨어져 매년 꽃을 볼 수 있다. 아름답고 화려하기보다는 동네 누이 같기도 한 수수한 모습이어서 마음이 더 가는 꽃이다. 야생의 과꽃은 북한의 함경남도에 있는 부전고원과 백두산에 자생하던 것으로, 북한에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것이 18세기에 프랑스로 채집되어 간 뒤에, 개량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과꽃을 연상시키는 어릴 적 동요도 아련하다.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과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과꽃 예쁜 꽃을 들여다보면/ 꽃 속에 누나 얼굴 떠오릅니다/ 시집 간 지 온 삼년 소식이 없는/ 누나가 가을이면 더 생각나요." 아이들의 동요 부르는 모습 또한 새삼 그리워진다. 코로나로 사람 보기가 어렵고 길거리에 초등학생들도 눈에 잘 뜨이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됐다. 하지만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는커녕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2천 명이 넘어서면서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생활도 경제도 미래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류는 서로를 도우려는 인류애적인 본성이 있기에 이 위기 또한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문득 '이 또한 지나가리라'(Hoc quoque transibit)라는 말이 떠오른다. 다윗왕의 반지에 새긴 솔로몬의 잠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의미다.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신뢰와 배려의 백신을 준비한다면, 잊고 지냈던 계절처럼 평범했던 일상 또한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